

#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f the Middle-aged Men and Women's Gender-role Identity,  
Mari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강 사 이 은 아\*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

Lecturer: Lee, Eun-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s gender-role identity, marital conflict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composed of mid life crisis, depression, and perceived happiness. The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397 married, middle aged men and women from 40 years to 59 years-old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role identity was different according to sex. In addition, women's perceived level of marital confli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ender role identity, indicating that androgynous women reported the lowest level of marital conflict. However, men's gender role conflict was not related to their marital conflict. Furthermore, men's psychological adjustment level was not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ender role identity, while women's psychological adjustment differed, indicating that androgynous women reported the lowest leve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he undifferentiated women the highest level of

\* 주저자, 교신저자: 이은아 (silver-0304@hanmail.net)

psychological adjustment. Finally, the result indicated that for both men and men, marital conflic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id-crisis and depression, and negatively related with happiness.

**Key Words** : 중년기 남녀(middle-aged men and women), 성역할정체감(gender-role identity),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 I. 서론

현대의 가족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생활주기와 관련하여 자녀수의 감소와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등으로 부모역할을 하는 시기가 짧아져 부부만 남아있는 중년기 이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40~5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1980년에 전체 인구의 14.7%, 1990년에 19.2%, 2000년에 24.5%로 나타나 중년기에 해당하는 남녀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0).

이러한 중년기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며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서도 절정기에 달해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완숙한 시기이며 직업, 결혼 및 사회적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대로의 인생 유형을 형성해 가는 안정기로(이성조, 1998), Oetting(1967)과 Mayer(1978)는 중년기를 가장 생산적이며 다른 연령층을 이끌어가는 시기라고 하였다(장하경, 1991 재인용).

반면, 중년기를 긴장과 상실, 위기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Jacues, 1965;

Leshan, 1973; Livson, 1988)이 있다(장하경, 1991 재인용). 중년기는 호르몬의 변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실직과 은퇴, 노후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직면함으로써 활력을 상실하고 인간의 한계성을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및 대인관계는 절정에 달했지만 동시에 하강과 은퇴를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하며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의 독립에 따른 가족의 재구조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 변화와 새로운 의미부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이중 부양부담 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기 위기에 관하여, Riegel(1976)은 인간의 성장은 안정기보다 위기의 시기인 전환기에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위기는 위험, 갈등, 고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Levinson(1978)도 중년기에 경험하는 혼돈과 갈등은 결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며 외면되어 왔던 자신의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고기숙, 2003 재인용).

중년기에 개인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발달상의 보편적인 위기로써 김명자(1989)는 후회감, 실망감, 초조감, 허탈감 등 종합적인 개념 즉, 과거 및 현재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

해로 중년기 위기를 정의하면서 결정적인 변환의 시기인 중년기에서 위기감의 경험은 변화에 대한 준비와 계획, 대인관계 체계의 상실여부, 역할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의 자각 등과 관련된 인성적·사회 심리적 요인, 시대적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전의 선행 연구결과들(김명자, 1989; 김명자·박성연, 1989; 김연화, 1999; 김현화, 1992; 이성조, 1998; 장하경·서병숙, 1992)은 중년기가 성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 등의 개인적 특성과 발달에 따라 전환 또는 위기의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사회적인 많은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역동적인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중년기의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이 가지는 특성 중 성역할 정체감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각 개인은 어린시기부터 자신의 성(sex)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기대되며 성정형화 되어간다. 각 사회마다 성고정관념이 존재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그 사회가 기대하는 각자의 성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 압박 및 심리적 부담감 등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성역할 사회화는 그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전반적인 사회구조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남녀가 각기 다른 성역할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변인과 관계 변인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보았으며 관계 변인으로는 부부갈등을 보았다.

먼저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하여, Mczydlo와 Betz(1980)는 개인의 욕구와 가치가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성역할 특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개인적 갈등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갈등과 불안은 잠재적인 문제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Eisler와 Skidmore(1987)는 남성성 역할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유주연, 1994 재인용). Rendely(1984)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남성적 집단과 양성적 집단의 여성이 여성적 집단과 미분화 집단보다 우울, 불안, 대인, 예민성 척도에서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장하경, 1991 재인용).

성역할과 우울에 관한 국내 연구들(박선숙, 1988; 이형초, 1992; 장재정, 1987; 장하경, 1991; 전양숙, 1990)은 성역할 정체감 내지는 성역할 태도가 우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경숙(1990)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여성의 우울감이 양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낮았으며 양성성 집단이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성역할 정체감과 결혼만족도에 관련하여, 김양호(1989)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일 때 다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하였으며, 문현숙(1993)은 취업주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 양성성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영미(1995)의 30~40대 맞벌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성,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여성성과 양성성의 집단간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 가족은 부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는 중년기에는 특히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이혼율이 천명당 1.5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년기에 해당하는 40~59세의 이혼율은 1990

년에 전체 이혼율의 14.5%, 1998년에 27.3%, 2000년에 30.5%, 2004년에 33.9%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이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명자(1989)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막내자녀가 출가한 후 20년 이상 더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므로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중년기가 생애 과정 중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기라고 하였다. 고기숙(2004)은 중년기에 남성은 점점 정서적, 수동-의존적, 양육적이 되어가는 반면에, 여성은 보다 지지적, 자율적, 자기주장적, 독립적이 되어가므로 성역할 인식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부부관계에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였다.

중년기 위기감과 부부갈등에 관련하여, 김명자와 박성연(1989)은 가족관계가 원만한 사람일수록 위기감이 낮다고 하였으며, 김애순과 윤진(1991)은 결혼 및 자녀관계가 중년기의 정서적 위기감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서정아, 1998; 유주연, 1995; 황인성, 1998)에서도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가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중년기의 위기감을 비롯한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이혼율의 증가나 부부문제 증가의 증가는 많은 부부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빈둥우리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중년기에는 더욱 부부관계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재응답이 중년기 위기와 적응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김현화, 1992; 유주연, 1994)은 중년기의 이러한 변화와 전환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다 잘 적응하여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 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중년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갱년기 증상이나 폐경 등의 신체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점차 중년기의 적응을 위기감,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관련변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정희, 1996; 김명자, 1989, 1991; 김미성, 1991; 김애순, 1993; 유주연, 1995). Lowenthal과 그의 동료들, Gove(1980)과 Johnson(1980)은 고등학생, 신혼부부, 중년 및 은퇴기 직전의 남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중년기 여성이 가장 정신적, 육체적으로 긴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Landis와 Page(1966)는 중년기 여성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장하경, 1991 재인용). 김명자(1989)와 김애순(1993)은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보다 의미있게 낮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을 중년기 여성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년기 남성에 대한 연구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고기숙, 2003; 김현지, 2000; 이명주, 2002; 이정아, 1997; 조은숙, 1990; 최은경, 1993; 황인성, 1998), 중년기 남녀를 함께 연구한 선행 연구(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김현화, 1992; 조인선, 1986)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년기인 40~50대에 해당하는 인구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통계청, 2000, 2004)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이 중년기의 부부관계 및 심리적 적응과 어느 면에서 어느 정도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중년기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대한 정보와 앞으로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전 단계로서의 정보를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이 개인적 특성인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중년기 위기감 수준의 실재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중년기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년기 기혼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중년기 기혼 남녀의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년기의 특징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녀가 독립하기 시작하는 40세 경부터 60세 이전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고기숙, 2003; 김남순, 1986; 김명자, 1989; 김재은, 1983; 장하경, 1991; Gould, 1978; Jung, 1933; Levinson, 1978).

중년기의 특징으로는 신체적·생물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신체적 노화 증상은 개인마다 그 정도나 속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세 정도부터 명확하게 나타난다. 신진대사 활동이 둔화되고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며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는 중년

기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Ckun과 George(1984)는 신체적 건강은 그것이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지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김연화, 1999 재인용). 신체적 건강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 가장 일관성 있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정의되는데, Klein(1988)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보다 자신의 생활에 덜 만족한다고 보았다. 김성수(2001)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는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중년기 남성의 건강상태가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년기는 다양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향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현재의 생활을 재배치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환적인 시기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재적응의 시기이기도 하다. 친구나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되며(김명자, 1991),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역할, 가치관의 변화들을 이루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하게 된다.

중년기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전환에 따른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를 긍정적인 전환의 시기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며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수용과 함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2. 중년기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성역할 정체감이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

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를 말한다. 즉, 사회가 각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또는 흥미를 동일시하는 것으로(임정빈·정혜정, 1997),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이 어느 정도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Cooper와 Gutmann(1987)의 중년기의 성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중년기 이후 특히 자녀의 성장 독립 이후 양성성으로 전환하여 남성은 모친성, 유친성이 보다 증가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지배성, 공격성, 자기중심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장하경, 1991 재인용). Sheehy(1995)는 중년기 성역할에 대하여 중년기에 출현하는 문혀있던 반대성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양성성으로 발전하다가 50대에 이르러 다시 유사해지면서 엄격한 역할구분이 사라지고, 60대가 되면 남녀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상호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김명자, 1998 재인용).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박선숙, 1988; 서수정, 1991; 여인동, 2001; 최규련, 1995; 한미향, 2000).

성역할 정체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민경신, 1986; 정승혜, 1988; Cooper, Chassin & Zeiss, 1985; House, 1986; Zammichieli & Sherman, 1988)에 따르면, 양성적인 사람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임정빈·정혜정, 1997 재인용). 김명순과 이주옥(1988), 문현숙(1993)의 연구에서 성역할 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양성성 유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미분화 유형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호(1989)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남성성이거나 미분화형일 때보

다 양성성일 때 부인 자신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 3. 중년기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적응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 건강하게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Bem(1974)의 양성성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외적 행동과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김애순, 1993; 김현화, 1992; 최성희, 2001; Bem, 1974; Cano, Solomon & Holmes, 1984; Lieblich, 1986; Pidano & Tennen, 1985).

Cook(1990)은 성역할 정체감이 특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심리적 근심 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ilbert(1981), Spence와 그의 동료들(1975)은 양성적 개인이 남성적 남성이나 여성적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적응능력도 우수하다고 하였다(최성희, 2001 재인용).

성역할 정체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적인 남성이나 여성적인 여성의 심리적 적응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Bassoff, 1984; Sinnott, 1982; Whitley, 1984)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구들은 남녀 모두에게서 여성성이나 미분화형보다는 남성성이나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현화, 1992 재인용).

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관하여, 박경숙(1990)의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복감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양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였다. 장재정(1987)은 한국 중년여성의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데 남성성과 양성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박선숙(1988)은 양성적인 기혼여성은 우울, 상태불안에서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 양성적인 사람이 성정형화된 사람보다 더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김미성(1991)은 양성적인 사무직 취업여성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으며, 최미이(2001)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성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는 경우에 가장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인선(1986)의 연구에서는 미분화 유형이 성역할 태도에서 가장 전통적인 태도를 보여 변화하는 사회에 보다 융통성있게 적응하기 위해서 심리적 양성성이 더욱 발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김현화(1992)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남성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 유형일 때,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일 때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형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성역할 정체감은 심리적 측면의 건강 및 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성적인 사람이 다른 유형의 사람보다 심리적·사회적 적응력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중년기의 다양한 변화와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이 적절하게 통합됨으로써 많은 변화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심리적 양성성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 4. 중년기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

중년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부부갈등 및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중년기에 부부갈등

이 높거나 부부관계가 나쁘면 심리적인 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문현숙, 1993; 박준희, 2004; 이수정, 1997).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부부간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였다(이경희, 1998 재인용). 이러한 부부갈등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의 심화, 가족간 불화, 폭력, 별거, 이혼 등의 가족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고 부부관계를 재정립해야하는 중년기에는 원만한 부부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의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위기감, 심리적 복지감, 우울감 등과 연관되어 연구되었다(김명자·박성연, 1989; 김성수, 2001; 김연화, 1999; 김애순, 1993; 이성조, 1998; 조유리, 2000; 한미선, 1992; 한미향, 2000).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하여, 김애순(1993)의 연구에서는 직업, 결혼 및 자녀관계에서의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고, 신기영과 옥선화(1991)는 중년기 주부는 폐경과 갱년기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남편과 자녀의 무관심으로부터 위기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조(1998)는 결혼만족도가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주연(1995)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결혼만족도와 관련하여서, 최규련(1995)과 조유리(2000)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김연화(1999)는 결

혼만족도가 중년기 직장남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신기영(1999)은 부부관계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수정(1997)은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고 하였고, 박준희(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김명자(1991)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이 직업보다는 가족생활을 우선시하며 직업지위에 무관하게 직업역할보다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남성의 행복감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경혜와 송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과 같은 심리적 건강 상태의 정도가 좋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은 부부관계가 중년기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중년기 기혼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라북도 소재의 학교, 기업체, 재래시장 등을 통해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65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9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59명, 여자 238명이었으며, 연령은 40~44세 37.0%, 45~49세 26.4%, 50~54세 22.9%, 55~59세 13.1%로 나타나 50대보다 40대가 두 배 정도로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25년 이하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첫자녀의 위치는 중·고등학생이 34.5%, 대학(원) 33.5%, 기타 26.4%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군복무, 취업, 가사, 결혼 등에 해당된다. 학력은 중졸이하 13.1%, 고졸 32.7%, 대졸 35.8%, 대학원 이상 14.6%로 대졸 이상이 50.4%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100~200만원인 경우가 25.9%로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는 전문행정직 37.5%, 판매서비스직 20.9%, 단순노무직 13.4%, 무직 및 전업주부 26.7%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전부 직장남성으로 나타나 무직 및 전업주부에는 여자만이 해당되었다.

#### 2. 측정 도구

##### 1) 성역할 정체감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하경과 서병숙(1991)이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성성 10문항, 여성성 10문항, 중성성 1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성역할 정체감 분류방식은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여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형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 모두 중앙치 이상인 집단, 여성성은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이고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인 집단, 남성성은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인 집단, 미분화는 남성성, 여성성 점수 모두 중앙치 이하인 집단이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이경희(1998)와 조유리(2000)가 사용한 부부갈등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개인적 특성영역, 부부관계 특성영역, 공동생활 특성영역, 제삼자 특성영역의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특성영역은 각 배우자 개인의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건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갈등 영역이며, 부부관계 특성영역은 대화, 부부간의 성, 애정이나 관심, 외도나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갈등 영역이다. 공동생활 특성영역은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전관리 및 소비, 가사노동 분담, 주거·주택계획, 가족여가활동 등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영역이며, 제삼자 특성영역은 부부 두 사람 이외의 관계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친인척, 자녀양육과 교육, 사회적 활동, 직장에서 기인하는 부부갈등 영역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갈등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개인적 특성 영역  $\alpha = .82$ , 부부관계 특성영역  $\alpha = .80$ , 공동생활 특성영역  $\alpha = .81$ , 제삼자 특성영역  $\alpha = .80$  이며 전체 부부갈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위기감 수준과 행복감 및 우울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1) 위기감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적응중 위기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애순(1993)에서 사용한 김애순, 윤진(1991)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중 정서적인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위기감, 개별화 과정, 활력의 상실감, 직업 불만족도, 결혼불만족도, 자녀관계 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척도와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인 적응만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정서적 부분인 정서적 위기감 22문항, 개별화 과정의 위기감 14문항,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7문항의 세 부분만을 측정하였으며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위기감은 소외와 불행감, 권태와 자기혐오에 관한 것이며 개별화과정은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자아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기의 위기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위기감  $\alpha = .96$ , 개별화 과정의 위기감  $\alpha = .90$ ,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alpha = .82$ , 위기감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 (2) 행복감

행복감은 심리적 안정과 복지 상태를 말하며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old Dupay의 GWB(General Well-Being)을 수정, 변안해 사용한 박수정(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자주 그랬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3) 우울감

우울감은 어떤 일에 대해 절망적이며 회복할 희망을 버리고 포기한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을 기초로 구성된 박수정(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자주 그랬다(5)'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차이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은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의 비율은 양성성 36.0%, 미분화 32.0%, 여성성 16.1%, 남성성 15.9%의 순으로 나타나 양성성이 가장 많았으며,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전체 68%를 차지하여 성유형화된 여성성과 남성성보다 많았다.

이는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현화(1992)의 전체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혜승(1995)의 연구에서 양성성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분화가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남성성이 23.9%였고, 여자의 경우 여성성이 17.6%로 나타났다. 양성성 유형은 남자 32.7%, 여자 38.2%로 나타

났고, 미분화 유형은 남자 29.6%, 여자 33.6%로 나타나 그 비율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성성 유형은 남자가 13.8%, 여자가 17.6%로 나타난 반면, 남성성 유형은 남자가 23.9%, 여자가 10.5%로 나타나 13.4%의 비율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남자의 남성성 비율이 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나라 남성이 성정형화된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며, 선행연구 결과(김금옥, 1997; 김현화, 1991; 장하경, 1991; 최성희, 2001; 한혜승,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자신의 성과 반대의 성역할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남자의 경우 여성성과 남성성의 빈도 차이가 10% 정도인데 반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약 7%의 차이를 보여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빈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역할을 습득하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고정관념적 성역할 정체감에서 벗어나 반대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에 비하여 열등하거나 낮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남성이 여성성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장하경(1991)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이외에도 탐색적 차원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의 부부갈등에서는 수입에 따라  $t = 2.59(p < .001)$ 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부부

갈등에서는 학력에 따라  $t = 2.67(p < .05)$ 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학력과 수입에 따라 행복감이  $t = 3.13(p < .05)$ ,  $t = 3.11(p < .05)$ , 우울감이  $t = 4.46(p < .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t = 3.17(p < .05)$ , 학력에 따라  $t = 7.84(p < .001)$ , 수입에 따라  $t = 5.80(p < .001)$ , 직업에 따라  $t = 4.48(p < .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행복감은 학력에 따라  $t = 7.60(p < .001)$ , 수입에 따라  $t = 4.85(p < .01)$ , 우울감은 연령에 따라  $t = 2.81(p < .05)$ , 학력에 따라  $t = 7.81(p < .001)$ , 수입에 따라  $t = 4.30(p < .01)$ 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

<표 2>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에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부부갈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영역들과 전체 부부갈등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

		N(%)				
변인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합계	
성별	남	52 (32.7)	22 (13.8)	38 (23.9)	47 (29.6)	159 (100.0)
	여	91 (38.2)	42 (17.6)	25 (10.5)	80 (33.6)	238 (100.0)
	전체	143 (36.0)	64 (16.1)	63 (15.9)	127 (32.0)	397 (100.0)
$\chi^2=12.94$ $df=3$ $p<.01$						

<표 2>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  
M(SD)/D

변인	부부갈등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공동생활 특성	제삼자 특성	전체	
남	양성성	2.35 (.69)	2.03 (.79)	2.05 (.83)	2.12 (.85)	2.14 (.68)
	여성성	2.54 (.94)	2.11 (.83)	2.06 (.77)	2.09 (.85)	2.20 (.75)
	남성성	2.64 (.84)	2.28 (.94)	2.22 (1.00)	2.33 (.89)	2.37 (.81)
	미분화	2.60 (.69)	2.37 (.65)	2.29 (.65)	2.40 (.74)	2.41 (.57)
F값	1.33	1.71	.90	1.31	1.60	
여	양성성	2.57 (.92)	2.09 (.84)a	2.08 (.88)a	2.06 (.83)a	2.20 (.72)a
	여성성	2.81 (1.02)	2.30 (.72)b	2.30 (.78)ab	2.51 (.76)b	2.48 (.67)ab
	남성성	2.96 (.95)	2.58 (.79)ab	2.42 (.94)ab	2.54 (.79)b	2.62 (.75)b
	미분화	2.64 (.81)	2.41 (.74)ab	2.48 (.81)b	2.36 (.82)ab	2.47 (.66)ab
F값	1.60	3.64*	3.42*	4.35**	3.76*	

\* $p < .05$  \*\* $p < .01$

즉, 부부관계 특성 영역, 공동생활 특성 영역, 제삼자 특성 영역, 전체 부부갈등에서 양성성 집단의 부부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부부관계 특성 영역에서는 양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보다 부부갈등이 더 낮았으나 남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동생활 특성 영역에서는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부부갈등이 더 낮았으며 양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삼자 특성 영역에서는 여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

이 양성성 집단과 차이를 나타냈으며 미분화 집단은 다른 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여성이 지각한 전체 부부갈등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남성성 집단보다 부부갈등이 더 낮았으며 양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인 민경신(1986), 김명순과 이주옥(1988)의 양성적인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여성성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양성성 집단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최규련(1984), 이영미(199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남자의 경우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유주연(1995)의 연구결과와 김명자(1991)의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의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우울감에서 양성성 집단이 가장 낮았고 미분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성 집단과 남성성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하경(199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나 남성성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았다는 최성희(200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4.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분석결과

<표 4>의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보면, 남녀 모두 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전체 부부갈등과 각 하위요인 영역은 위기감 및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부부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위기감도 높으며 우울감 또한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표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 M(SD)/D

변인	위기감				행복감	우울감	
	정서적 위기감	개별화 과정	능력과 활력 상실감	전체			
남	양성성	2.42 (.88)	3.32 (.70)	2.82 (.69)	2.85 (.64)	3.32 (.57)	2.37 (.57)
	여성성	2.56 (.74)	3.10 (.51)	2.89 (.57)	2.85 (.53)	3.31 (.51)	2.55 (.64)
	남성성	2.50 (.67)	3.16 (.60)	2.85 (.65)	2.84 (.52)	3.35 (.57)	2.36 (.55)
	미분화	2.68 (.62)	3.10 (.56)	3.01 (.60)	2.93 (.51)	3.22 (.39)	2.54 (.49)
F값	.99	1.31	.77	.24	.55	1.42	
여	양성성	2.47 (.91)a	3.22 (.82)	2.83 (.86)a	2.84 (.75)	3.32 (.70)	2.27 (.67)a
	여성성	2.75 (.84)ab	3.28 (.67)	3.09 (.76)ab	3.04 (.66)	3.29 (.73)	2.37 (.61)ab
	남성성	2.66 (.80)ab	3.16 (.60)	2.96 (.63)ab	2.93 (.60)	3.13 (.48)	2.47 (.52)ab
	미분화	2.86 (.82)b	3.19 (.62)	3.21 (.63)b	3.08 (.61)	3.15 (.54)	2.55 (.54)b
F값	3.00*	.18	3.80**	2.02	1.33	3.19*	

\*p< .05 \*\*p< .01

<표 4>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변인	위기감				행복감	우울감
		정서적 위기감	개별화 과정	능력과 활력 상실감	전체		
남	개인적 특성	.58***	.19*	.44***	.49***	-.43***	.45***
	부부관계 특성	.53***	.21**	.42***	.47***	-.41***	.44***
	공동생활 특성	.44***	.21**	.34***	.40***	-.33***	.39***
	제삼자 특성	.48***	.28***	.36***	.45***	-.34***	.42***
	전체	.58***	.26**	.45***	.52***	-.43***	.49***
여	개인적 특성	.46***	.23***	.31***	.40***	-.35***	.40***
	부부관계 특성	.49***	.28***	.33***	.43***	-.41***	.44***
	공동생활 특성	.49***	.26***	.28***	.41***	-.33***	.39***
	제삼자 특성	.47***	.21**	.26***	.37***	-.31***	.42***
	전체	.57***	.30***	.35***	.48***	-.42***	.49***

\*p< .05 \*\*p< .01 \*\*\*p< .001

또한 전체 부부갈등과 각 하위요인 영역은 행복감과 모든 영역에서 부적상관을 보여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짐을 나타내었다. 남자의 경우에 개인적 갈등과 전체 부부갈등은 정서적 위기감과  $r = .58$ 의 정적상관을 보여 모든 변인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부부갈등과 정서적 위기감이  $r = .57$ 의 모든 변인중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관계와 남녀의 중년기 위기감과 의 관계에서 가족관계가 원만한 사람일수록 위기감 수준이 낮다고 밝힌 김명자와 박성연(198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김애순(1993)과 유주연(1994)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화와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의 적응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은 남녀 모두 양성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분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성유형화된 사람보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발달되었거나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의 사회화를 거처온 우리나라의 중년기 남녀에게서도 뚜렷한 성역할 구분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된 양성성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Jung(1933), Gutmann(1975), Tamir(1982)의 중년기 이후는 남성성·여성성이 통합되어 성역할이 보다 융통성 있게 변화하는 시기이며, 잠재되어 있던 개개인의 인성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김명자, 1998 재인용)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생각되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성역할의 제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성성 다음으로 미분화 유형이 많은 것은 중년기의 부모역할 감소로 인한 성역할의 변화 요구, 현대의 남녀 평등사상, 능력위주의 사회 등의 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가정, 직장, 사회생활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적응력이 높은 양성성을 지녀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가지 특성 모두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미분화 유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성 유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이 여성스럽게 행동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보다 남성이 남성답게 행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며,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특권을 인식하게 되면서 남성성을 더욱 성정형화시켜 획득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양성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분법적인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있으며 특히 남성의 성역할 정체감의 획득과 변화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에 성역할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여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남성의 경우에 남성성 유형이 중년기 남성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Scott(1990)는 성차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성차를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다양성, 개인차, 주관적 현실을 더 중시하는 현 사회의 흐름으로 볼 때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에 얽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와 전환의 시기인 중년기에는

상황에 따른 어떠한 행동도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미분화 유형이나 성유형화된 남성성, 여성성 유형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고루 갖추어 여러 상황과 변화에 융통적으로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양성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중년기의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갈등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의 경우에 개인적 특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양성성 집단이 가장 낮은 갈등수준을 보였으며 부부관계 특성영역과 제삼자 특성 영역 및 전체 부부갈등에서는 남성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가 양성성 집단이 가장 높았다는 문현숙(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성의 경우에 개인적 특성 영역을 제외한 부부관계 특성영역, 공동생활 특성영역, 제삼자 특성영역에서 부부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남성은 과제지향성이, 여성은 인간지향성이 더 강하다는 지적(김양호 외, 2001; 엘린 피즈, 2000)들을 입증하는 결과로써 여성들의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여성의 양성성 집단의 부부갈등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혜승(1995)과 문현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양성성 특성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인간 상호관계에서 융통성이 있으며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도 적응적이고 융통적으로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부부갈

등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여자는 여자다워야 인정을 받고 여성 자신도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간주해왔던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따르는 여성 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적절하게 지니고 있는 여성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응력이 높으며 부부관계를 비롯한 결혼생활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전체 부부갈등에서 여성의 남성성 집단의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년기 이후에 남녀 모두 성역할이 양성성으로 전환하여 남성은 모친성·여성성·유친성이 보다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지배성·공격성·자기중심성이 증가함을 보고한 Cooper와 Gutmann (1975)의 연구와 연결된다(장하경, 1991 재인용). 즉, 중년기의 남성은 이전보다 수동적, 감성적이 되며 여성의 경우에 남성적 특성으로 간주되어온 지배성·공격성·자기중심성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부부갈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을 탈피하여 시대 흐름에 따른 성역할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년기 이후에 자신의 남성성·여성성의 표현에 보다 자유로워지고 조화를 이루려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중년기의 발달 특성 및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 향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 및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위기감, 능력과 활력의 상실감,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 양성성 집단이 위기감과 우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미분화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선숙(1988), 김현화(199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성의 경우에 양성성 집단의 위기감과 우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양성성의 사람이 다양한 변화와 상황에 더 적응을 잘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처온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며, 가정과 사회속에 잔재하는 성정형화된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에게 역할과중이나 역할갈등 등을 유발하게 하는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 낮은 자존감, 삶에 대한 의욕이나 성취동기의 저하, 자신감의 저하,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개인적·사회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정형화된 성역할보다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하여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부터 먼저 평등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특징인 대중매체를 통하여 평등한 성역할 모델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개인은 중년기, 노년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역할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에서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중년기에 양성성 유형으로 전환

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특성들 즉, 내향적, 감정적, 표현적, 관계 지향적인 특성들로 인하여 중년기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부부관계나 심리적 측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남성의 경우 감정의 억제를 강조하는 남성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남성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이 부부관계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중년기에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재조정,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 노력, 중년기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심리적인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성역할의 차이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적절한 통합을 통하여 중년기에 경험하는 변화를 생애의 새로운 성장기제로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중년기와 미래의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은 남녀 모두 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과 위기감 및 우울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부부갈등과 행복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남녀에게 부부갈등이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의 개인적 특성 영역과 전체 부부갈등이 정서적 위기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부부갈등이 정서적 위기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중년기 남성의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건강 등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갈등이 심리적 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년기 이전까지 가져왔던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중년기의 적응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중년기 남녀의 부부갈등이 정서적 위기감과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부부관계가 중년기의 심리적 위기감 특히 중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소외감, 불행감, 권태로움, 자기혐오 등의 정서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김명자와 박성연(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부부관계로 인한 중년기의 위기감과 심리적 부적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년기를 부정적인 위기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시기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생의 주기에서 개인이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와 역할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적응해 나가야 하는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로 보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 및 가족관계를 조화롭게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 재분배 및 가족간의 상호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중년기 가족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년기의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중년기를 정의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40-59세로 정의하였으나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중년기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만을 파악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탐색적 차원에서만 조사하였다. 추



후연구에서는 중년기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좀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중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만을 고려하였으나 부부관계 이외의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적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년기의 심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측면의 적응과 위기 등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정희(199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고기숙(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기승주(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전남지역 농촌부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금옥(1998). 부부의 성역할 성향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남순(1986). 한국 중년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명순, 이주옥(1988).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162-171.
- 7)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8) \_\_\_\_\_(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61-76.
- 9) 김명자, 박성연(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97-118.
- 10) 김미성(1991). 성역할정체감·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성수(2001).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중년기 위기의 시기 확인 및 발달과정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애순, 윤진(1991). 중년기 위기감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 4(1), 73-87.
- 14) 김양호(1989). 부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부부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김양호 외(2001). 결혼할까 혼자살까. 서울 : 김영사
- 16) 김연화(1999). 중년기 직장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김영희(1989). 한국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김용미 외(2002). 결혼과 가족의 의미. 서울 : 양서원.
- 19)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 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김재은(1983). 인간발달과정. 서울 : 전망사.
- 21) 김현지(2000).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신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민경신(1986). 우리나라 주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문현숙(1993). 도시주부의 성역할정체감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박경숙, 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65-80.
- 26) 박경숙(1990).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박선숙(1988). 기혼여성의 성역할정체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박준희(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 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서수정(1991).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3) 신기영, 옥선화(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34) 여인동(2001). 부부가 지각한 갈등과 자아분화수준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앨런 피즈 외(2000).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서울 : 가야넷.
- 36) 유주연(1995).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중년기 남성의 위기감.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이명주(2002).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이성조(1998).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이영미(1995).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의 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이정아(1997). 부산시 기혼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3)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 변수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9.
- 44) 이주희(1999). 취업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성역할정체감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5) 이형초(1992). 성역할 정체감이 여성의 우울감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7)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48)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49) 장하경(1991).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증.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0) 장하경, 서병숙(1992).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0), 263-276.
- 51) 전양숙(1990). 성역할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2)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3) 정숙희(1996). 중년 여성 우울증 환자를 위한 집단 사회사업 개입. 경북대학교대학원 사학위논문.
- 54)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5)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6) 조은숙(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7) 조인선(198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태도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8) 최규련(1993). 가족생활만족.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서울 : 하우.
- 59) \_\_\_\_\_(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60) 최미이(2001). 직장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1) 최선미(1992). 도시 중년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2) 최성희(2001). 기혼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3) 최은경(1993).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4)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 65) \_\_\_\_\_(2004). 인구동태조사
- 66) 한경혜, 송지은(2001).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2.
- 67) 한미선(1992). 중년기 부인의 자녀문제에 의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8) 한미향(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9) 홍선경(1996).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70) 황인성(1998).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1)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72) Cano, L., Solomon, S. & Holmes, D.S. (1984). Fear of success: The influence of sex, sex-role identity and component of masculinity. *Sex Roles*, 10, 341-346.
- 73) Cook, E.P.(1990).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 74) Gould, R.L.(1978). *Transformations :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Y. : Simon and Schuster.
- 75) Jung, C.G.(1933).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 Pantheon.
- 76) Klein, R.B., Canter, W.A. & Robin, A. (1988). Parameters of teenage alcohol use : A path analytic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4), 521-528.
- 77) Levinson, D.J, Darrow, C.N., Klein, E.B., Levinson, M.L. & Mckee, B.(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 Knopf.
- 78) Mezydlo, L.S. & Betz, N.E.(1980). Perceptions of ideal sex roles as a function of sex and feminist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3), 282-285.
- 79) Spence, J.T., Helmerich, R. &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2006년 1월 15일 접수, 2006년 2월 26일 채택)